

‘클로즈’
‘리턴 투 서울’
‘토리 와 로키타’
‘슬픔의 삼각형’



‘백두’

광주극장서 ‘칸 영화제 스페셜’ 열린다

3일부터 4편 상영...시네마 보딩패스·포스터 증정 등 이벤트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올해 76회를 맞았다. 오는 16일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열린 제 75회 칸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을 만나는 ‘칸 영화제 스페셜’이 3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상영 기간 중에는 시네마 보딩패스와 포스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3일 개봉하는 ‘클로즈’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던 레오와 레미, 두 소년이 마주해야 했던 아름다운 계절을 담은 드라마다. 첫 장면 ‘겔’로 제71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카메라상을 비롯해 4관왕을 수상한 루카스 돈트 감독의 신작으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영화가 데뷔작인 주인공 에덴 담브린과 구스타브 드 와엘은 친구들로부터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마음의 균형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같은 날 개봉하는 ‘리턴 투 서울’은 우연히 자신이 태어난 서울로 리턴한 25세 ‘프레디’가 한국 부모를 찾으면서 시작된 운명적인 여정을 담은 영화다. 주목할 만한 시선 초점을 시작으로 LA비평가협회 뉴제네레이션상, 보스턴비평가협회 작품상을 수상했다. 캄보디아계 프랑스인 데이비 추 감독이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 당시 한국인 입양아 친구가 한국 가족과 만나는 과정에 동행하게 되면서 겪은 일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배우 경험이 전혀 없는 미술 아티스트 박지민이 신선한 연기를 보여 주며 배우 오광록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토리 와 로키타’ (10일 개봉)는 제75회 칸영화제 75주년 특별기념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 감독

독다르덴 형제의 작품이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영화는 누나와 함께 살고 싶은 토리와 취직을 해서 토리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로키타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칸영화제 공식 상영 후, 10분간의 감동적인 기립 박수를 받으며 해외 언론 매체의 뜨거운 극찬을 받았다. 지난해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후보에 오른 ‘슬픔의 삼각형’ (17일 개봉)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호화 크루즈에 탑승한 이들의 예측 불가 계급 전복 코미디다. 각본까지 쓴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은 2017년 ‘더 스퀘어’로 이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포브스’는 “올해 가장 웃긴 영화 어찌 면 앞으로 영원히”라는 평을 달았다. 시간표 확인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cino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염원 담아

정재경 개인전...3~8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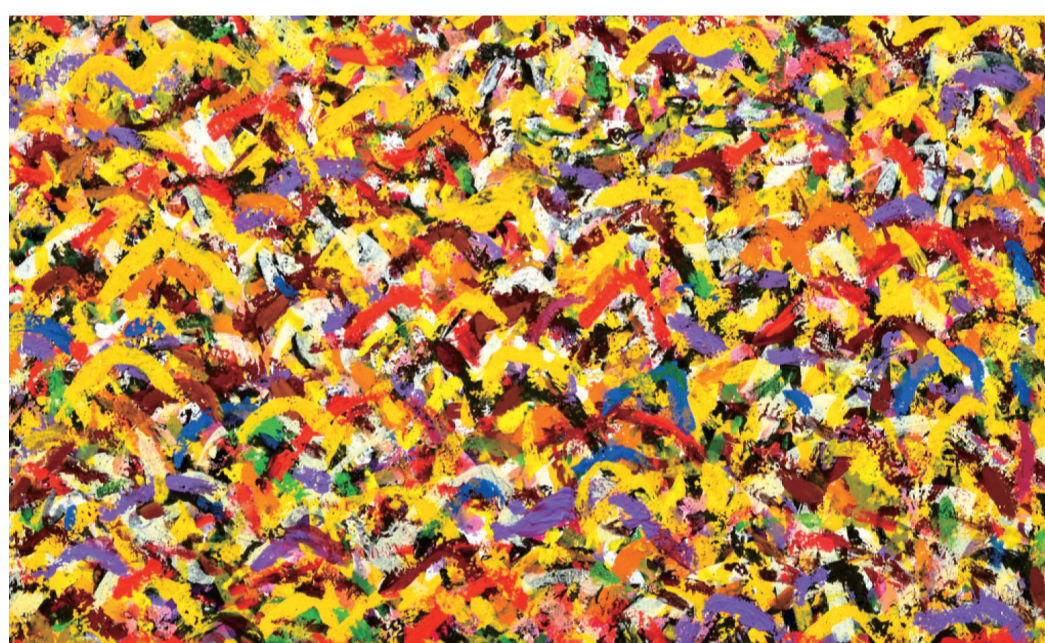
‘통일의 염원을 붓끝에 실어’ 하늘 높이 나는 갈매기는 자유롭다. 남녘과 북녘 하늘을 마음껏 날다드는 갈매기 무리를 상상하며 정재경 작가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봤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는 갈매기를 그려나갔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조국 산하의 풍광도 함께 담았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2023년,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봉산(鳳山) 정재경 세번째 개인전이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에서 열린다. ‘한라에서 백두까지-자유, 자연 그리고 우리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이어진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늘 헤아려 오던 정 작가는 지난해 4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분단과 통일의 염원들을 화폭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갈매기 연작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5m에 이르는 벽면을 갈매기를 소재로 한 ‘자유, 자연 그리고’ 연작으로 채운다. ‘만남’, ‘태동’, ‘우리는’, ‘시작’ 등으로 이어지는 작품은 자유로운 새들의 날갯짓을 통해 남과 북이 어우러지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수목 담채로 풀어낸 작품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산방산 너머 한라산 정상에 걸린 ‘한라의 눈꽃’과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모습을 원색의 화려한 색채감과 생동감있는 붓터치로 표현한 ‘백두’도 주요 전시작이다. 전시에는 한국전쟁을 떠오르게 하는 ‘슬픈 기억의 철도’, 철원 노동당사에서 만난 ‘철마는 달리고 싶다’ 등의 작품이 나왔으며 ‘천지의 불’을 비롯해 금강산 구룡폭포, 귀면암, 절부암, 해금강 등 북녘 땅의 풍광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또 ‘홍매’, ‘삶의 여정’ 등 초창기 수묵담채 작품과 여백의 미와 현대적 느낌이 인상적인 ‘여가’, ‘친구와 더불어’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금봉 박행보 선생을 사사한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수묵화 뿐 아니라 유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내 인생의 남아있는 여정에서도, 한 마리 새가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훨훨 날아올라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까지 그림 속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충북대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 후 36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정 작가는 현재 완도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며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항환 화백, 생동하는 ‘봄을 열다’

7~16일 개인전...30여점 전시 전남도립도서관 1층 남도화랑

전정(田丁) 박항환 화백의 예술 여정은 고향 진도에서 시작돼 목포를 거쳐 서울로 이어졌다. 남농 허건, 도촌 신영복 선생 문하에서 전통 남종화를 배우고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간 그는 38년간의 서울 활동을 접고 14년 전 목포로 귀향했다. 지난 2018년 남도전통미술관에 문을 연 진도군립 박항환미술관은 그가 기증한 작품 130여점을 기반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남도 수목의 전통을 이어가던 그의 작품 세계는 15년여 전, 전환을 맞는다. 수묵 작업을 하면서도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끝없이 변화를 시도했던 그는 서양화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색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아크릴 물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대적인 변신을 꾀한다.



‘봄을 열다’

박항환 화백 개인전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1층 남도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봄을 열다’ 연작 30여점을 만난다. 최근 2년여간 집중적으로 작업한 작품들로 화폭에 펼쳐지는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은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만끽하게 해준다. ‘색채’에 대한 궁금증이 그의 작품 변화를 이끌어 온 것처럼 이번 전시작들은 무엇보다 다채로운 색감이 도드라진다. 장지에 아크릴을 덧칠하고 수묵을 곁들여 빨강, 노랑, 파랑 등 다채로운 색을 다양하게 풀어낸 작품은 한국화에 현대적 조형미를 더하며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변화된 화풍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묵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지만, 지금

의 작업에 대해 아직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깊이 지금도 다 모르니 작업하는 게 재미있고 흥이 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박 화백은 오래 전부터 야외 사생을 나갈 때면 소나무, 꽃, 새 등 자연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연연하지 않고 그 ‘이면’을 바라보고는 했다. 그래서 비구상으로 풀어내고 있는 현재의 작업이 그에겐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작품에는 저의 삶의 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풀어놓은 것은 꽃이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합니다. 또 황톳빛 땅일 수도 있습니다. 풍경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마음에 다시 되새기다 보면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봄을 열다’ 연작 역시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길 바란다며 말했다. 박 화백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2004년), 한국미술협회 공로상(2016)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빅도어시네마’ 진행 장면.

(ACC재단 제공)

가족과 함께 ‘ACC 빅도어시네마’ 즐겨요

5~6일 ACC 예술극장 야외무대

준비했다. 첫날인 5일에 준비한 작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Moana)’. 여주인공 모아나가 저주에 걸린 모투누이 섬을 구하기 위해 전설의 영웅 마우이를 설득한다는 내용이다. 모험 이야기와 결을 여진 시원한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을 볼 수 있다. 6일에는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Coco)’가 관객을 찾아온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주인공 미구엘이 ‘죽은 자의 날’에 ‘죽은 자의 물건’을 손대면서 저승을 떠돌게 된다는 모험담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빅도어시네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의 빅도어를 열고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ACC 대표 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친구 등이 함께 야외에서 인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빅도어시네마가 마련됐다. ACC재단은 5일과 6일 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빅도어시네마를 진행한다. 올해는 어린이날 연휴가 맞물려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애니메이션 작품을

‘어린이날’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해요



지난해 열린 행사 모습.

광주YMCA 공동, 2·4·6일...키링·토끼가면 만들기 등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이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YMC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2일, 4일, 6일 3일간 미술관 문화센터 교육실과 문화센터 앞 테크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크릴 키링 만들기’ ‘핑거페인팅’ ‘토끼가면 만들기’로 모두 8회에 걸쳐 마련되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 6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진행되는 ‘페이스페인팅’은 현장에서 접수 후 참여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로다. 한편,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과 함께 미술관에 방문한 관람객들을 위한 기획 전시도 진행 중이다. 어린이 갤러리에서는 ‘여행! 지금 떠남니다’가 열리며 미술관 본관에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세다 간 기후 범죄 재판소:멸종 전쟁’, ‘제주4·3기념 박경훈-새김과 그

림’, ‘김호석: 검은 먹, 한 점’ 등이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드영미술관, 19일까지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2023 청년작가 전시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광주시 동구 미술관-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역량있는 신진청년작가를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술관의 취지에 따라 지역 미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젊고 패기 있는 작가들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은 만 40세(1982년생) 이하의 광주에서 출생 또는 거주하고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청년작가로, 개인전 1회 이상의 시각예술분야

전시경력(학위취득전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드영미술관의 전시공간 제공 등의 지원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전시는 오는 7월 중순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작품 소개 및 이미지를 포함한 포트폴리오와 공모신청서 등 필수제출 서류를 첨부해 미술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결과 발표일은 26일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